

# 1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2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 1~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춤,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enthousiasmos)’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techne)’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보통 ‘엔투시아스모스’는 ‘열광’, ‘열정’을 의미하고 ‘테크네’는 ‘기술’, ‘제작’을 의미한다.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엔투시아스모스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신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신과 교감하는 열광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춤, 시, 음악이 ㉠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

# 국어 영역

다. 또 회화와 조각이 실물의 모방이기 때문에 이 모방은 실물의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을 사용한 모방, 즉 환상의 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는 신과의 교감에 의해서 얻은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과는 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테크네를 발휘하여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회화와 조각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 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 속에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다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투시아스모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의 상상력, 무의식 등과 관련되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테크네의 가치는 사실주의에 의해서 부각된다.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이데아: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原形).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초월적인 실체로서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 세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테크네가 신적 존재와 무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인간이 테크네를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 작품과 회화 작품의 창작 기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종교 행사에서 행한 몸짓, 언어 등의 활동이 인간을 엔투시아스모스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2.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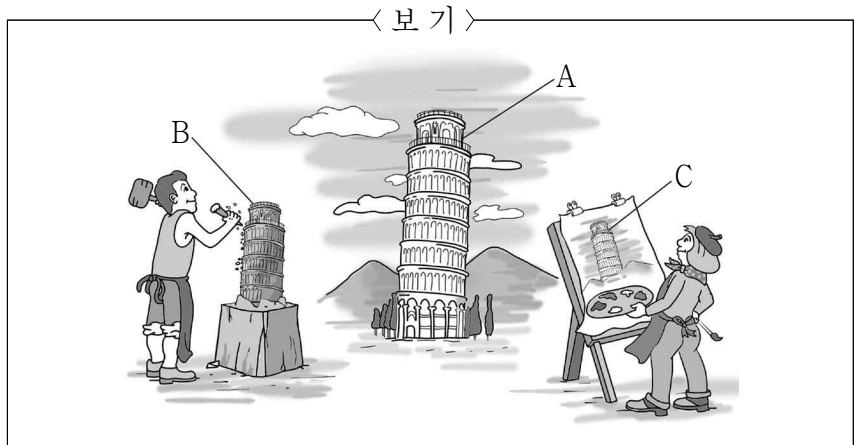
구 분	엔투시아스모스	테크네
고대 그리스인	㉠	㉡
플라톤	㉢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인간의 능력
낭만주의	㉣	
사실주의		㉤

- ① ㉠: 종교 행사에서 사체를 제외한 참가자들이 겪는 열광적인 상태
- ② ㉡: 인간이 규칙 체계를 따르며 행하는 제작에 필요한 지적 능력
- ③ ㉢: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 ④ ㉣: 인간의 감정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강조한 개념
- ⑤ ㉤: 정확한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강조한 개념

### 3. ㉠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작의 기원	특 징
①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의 의식적인 상상력의 산물임
② 엔투시아스모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내용이 표현됨
③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임
④ 테크네	현실 세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님
⑤ 테크네	교감을 통해 얻게 된 신의 메시지임

###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 C 모두를 지적 능력의 소산으로 보았겠군.
- ② 플라톤은 A가 지닌 가치를 B, C가 지닌 가치와 다르게 규정했겠군.
- ③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를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겼겠군.
- ④ 플라톤은 B, 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플라톤은 C가 A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겠군.

# 국어 영역

5.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세잔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 ① 플라톤은 세잔과 달리 사물의 본질이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있군.
- ② 세잔은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③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사물의 형태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 ④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추상적인 묘사를 사용한 작품 창작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 ⑤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군.

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상품은 시장에 나온 후에 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 ② 상대가 비열하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③ 우리 학교 신문에 내 친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 ④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 ⑤ 경기에서 상대에게 진 것은 욕심에서 나온 그의 행동 때문이다.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 지표를 사용했다.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 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 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 국어 영역

7.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유동성의 의미
- ② 지급준비금의 용도
- ③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
- ④ 국가별 통화 지표의 종류
- ⑤ 우리나라 통화 지표의 변화

8. ㉠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화 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통화 지표를 변경하여 예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③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 ④ 현금과 예금 상품을 분리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⑤ 경제 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지표를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 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A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B 은행은 이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박 씨에게 대출했다. 박 씨는 대출받은 81만 원을 모두 C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                    )

- ①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② 18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③ 2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④ 29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⑤ 3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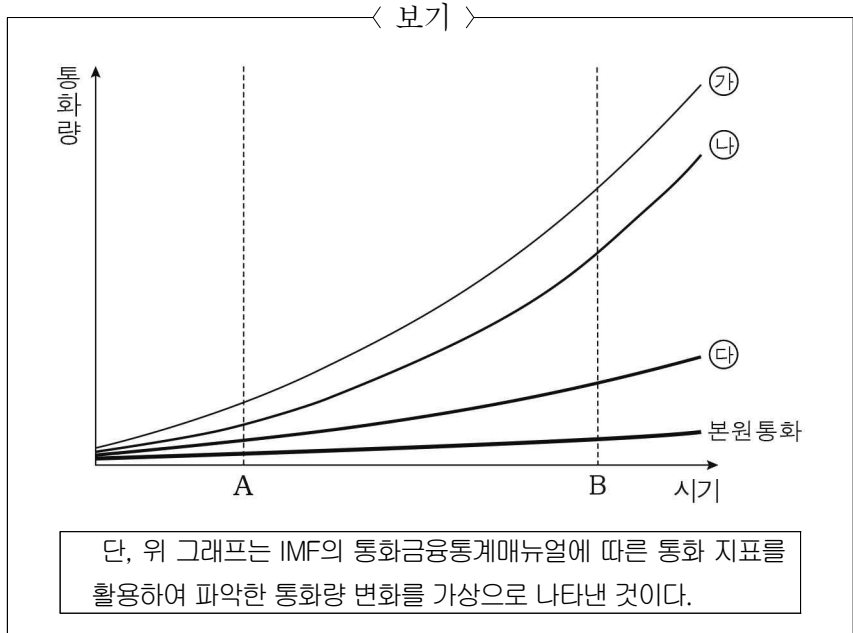
1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같은 상황에서 ㉡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 ①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② 파생된 통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본원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 ④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 ⑤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11.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 ② ㉢은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 ③ ㉢에 비해 ㉠은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 ④ ㉡가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될 결과이겠군.
- ⑤ A와 B 시기의 통화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통화 대비 ㉣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

# 국어 영역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C]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찔레」 -

1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13.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14.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국어 영역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림 이불을 걸고 일어나 앉는다. 차림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흠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뚜드려 만든 쇠불이 같으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땀뿜었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불이와 쇠불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뻘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나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님.’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렇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흑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жат과 무복이 필러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아썬 절로 가시야졌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B]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림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으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걸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 국어 영역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뵈었더냐?  
 치 수 못 가 뵈었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 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뵈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 씨 산으로?  
 치 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뽀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니!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 어머니!

대문개로 뛰어간다.

###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니!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 15.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피하고 있다.

### 16.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17.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림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 18.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              |

# 해설

③①③③⑤  
⑤④③③④  
④④③⑤②  
②④⑤

##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의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를 보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테크네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② 3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1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와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를 보면 적절하다. ⑤ 2문단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 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를 보면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의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를 보면 적절하다. ④ 5문단의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5문단의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를 보면 적절하다.

## 3. [출제의도] 특정 대상에 대한 철학자의 관점 파악하기

4문단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시가 엔투시아스모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엔투시아스모스가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시를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을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실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를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축, 회화, 조각을 모두 지적 능력인 테크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4문단의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건축의 가치를 조각과 회화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④ 4문단의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를 보면 플라톤은 조각과 회화를 제작할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4문단의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를 보면 플라톤은 회화가 실물인 건축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서로 다른 두 관점 비교하기

4문단의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와 <보기>의 '세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를 보면 플라톤과 세잔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은 문맥상 '어떠한 근원에서 발생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새 상품이 시장에 나타난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걸음으로 드러낸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책, 신문 따위에 글, 그림 따위가 실리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안에서 밖으로 오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이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 준비금으로 남고'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통화량이 물가변동과 실업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2003년을 기점으로 통화 지표가 변화하였다고 하였고, 2003년 이전과 이후에 달리 사용된 통화 지표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에서 2003년 이전에는 '통화'와 '총통화'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총유동성'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주로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표를 나누었다. 그러나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새로 나눈 통화지표에서는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중에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은 '협의통화'에 포함시켰고,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은 '광의통화', 유동성이 매우 낮은 상품들은 'Lf'에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것이다.

## 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100만 원이 A은행에 예금된 후 이 중 90만 원이 대출되어 190만 원으로 통화가 늘어났다. 또 대출된 90만 원은 다시 B은행에 예금된 후 이 중 81만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271만 원으로 통화가 늘었다. 다만, 대출되었다가 곧바로 각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그만큼 시중의 현금이 줄어든 셈이므로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 10.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2문단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신용창조가 일어나 통화량이 본원통화보다 몇 배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면 통화승수가 하락하므로 적절하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면 통화량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통화의 파생은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다고 하였으므로 본원통화가 줄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대출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협의통화에 포함된 통화의 종류가 가장 적고, 광의통화와 Lf로 갈수록 포함되는 통화의 종류가 많아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도 IMF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했으므로, ㉠은 Lf, ㉡는 광의통화, ㉢는 협의통화라고 할 수 있다. 3문단에서 광의통화에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Lf는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협의통화에는 '수입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본원통화에서 증가된 통화량의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통화승수는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에서,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리'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가 대상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의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심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뿔뿔다'는 화자가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행위의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화자가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비교하기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서 있고 싶다'는 [B]와 [D]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정서를 의미하고, [D]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D]에서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구절을 통한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서사 전개 상 '오랜 시일 이별'은 윤씨 부인이 절에 가서 치수와 이별하게 된 시간임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 위해'와 '무거운 굴레를 둘러 쓴'은 치수가 의도적으로 재산에 무관하려 하자 윤씨 부인이 치수의 재산에 관여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거운 굴레를 둘러 쓴' 것은 치수가 아니라 윤씨 부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은 윤씨 부인의 쇠약하고 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로 적절하다.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윤씨 부인과 치수의 갈등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이 절에서 돌아온 후의 차가운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무너졌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남보다 먼 사람'이라는 표현은 윤씨 부인에 대한 치수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원작과 시나리오를 비교 감상하기

[A]에서 '치수는 양 무릎을~방바닥에 떨어뜨린다.'를 통해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대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시선은 방바닥에 떨어뜨려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이불의 소품은 '차림이불의 갈매빛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서 배우의 목소리는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머리 모양 옷매무새~변함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B]에서 다급한 어투는 '마음이 급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적용하기

㉠에서 치수는 말로는 사회에게 어머니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치수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